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차과 수렴 김민회 교수

‘제1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학술-전기자동차 부문 수상

수상자 수렴(秀蓀) 김민회(金玟會) 교수는 1978년 3월부터 현재 까지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약 40여 년간 봉직하면서 전력분야 인력양성에 적극적 이었으며, 국제적인 학회 학술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 등 다방면에 기여하였다.

김 교수는 1953년 경북 예천에서 출생하여 초·중등 교육을 농촌에서 받았으며, 1970년 영남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여 학사 및 석사학위를, 중앙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전공한 분야는 전기기기 및 전력전자(電力電子, Power Electronic) 공학에 관련된 영역으로, 전동기 제어와 전력변환 및 전원시스템 응용에 관한 연구이다.

김 교수는 1993년 교육부과건 연구교수로, 미국 테네시 주립대의 전력전자응용연구센터에서 2년간 NASA Project "Advanced Propulsion Power Distribution System for Next Generation Electric/Hybrid Vehicle (PNGV Plan)"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여 연구한 결과의 한 부분을 1996년 Taipei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IECON '96에서 발표하여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



수렴 김민회 영남이공대학교 전기자동차과 교수

다. 아울러 독일 한림원에서 지원하는 韓·獨 전력전자 심포지움에 참석하는 등 많은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학회활동으로, 전력전자학회는 물론, 대한전기학회 편집위원, 이사 및 중신회원으로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이사 및 중신회원이다. 또한 1995년부터 IEEE-IIES, PLES, PES, IAS의 Senior Member이며, 일본전기학회(JIEE) 전력응용부분회의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활동으로, 2006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컴퓨터기술연구소 IC카드

연구센터 운영위원과 국제통용 전자운전 면허증 개발단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2002년도 영남이공 대학에 전력응용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으로서 전력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에 있는 많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기술자문, 평가 등을 함으로서 전기자동차 기술교육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2001년, 2002년, 2003년에 세계 3대 인명록 사전(Marquis Who s Who·S&E·IBC)에 등재되었으며, IBC에서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와, "TOP 100 Educator 2008 for Teaching of Electrical Engineering"로 선정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미국 ABI에서 "Universal Award of Accomplishment"를 수상하였다. 그간 수렴 김민회 교수의 공적을 살펴보면 1992년 3월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지도 우수상을 받았으며, 1996년부터 현재까지 전력전자학회 정회원으로 평위원, 이사, 전력응용연구회장, 부회장 및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국제 전력전자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Power Electronics)인 ICPE 2004

에서는 Management Committee Chairman를, ICPE 2007에서는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으로 활동하여 성공적인 학술회의 개최로 공로상을 받았다.

2002년부터 7년간 한국전력에서 주관하는 전력산업 기초인력양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대구지역의 7개 공업계고등학교 전기관련학과 의 교사를 위한 연구회 모임의 활성화, 전기공학의 미래와 중요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전력인력의 신입생 유치, 재학생에게는 기초 전기공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보다 높은 자긍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2004년부터 8년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ISO/IEC/SC17의 전문위원으로, 한국의 IC카드표준작업과 국제표준을 위해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는 등의 왕성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하였다. 최근에는 2014년 5월부터 3년간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전문위원회 철도전력(전력·통신·신호)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철도전력분과 위원장으로 재 위촉되어 2020년까지 전력분과 위원장을 중임하게 되었다. 수렴의 연구업적으로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연구한 학술발표 논문이 190편이며, 수행한 연구과제 35건, 기술보고서 3편, 저서 및 공역서는 22권이나 된다.

김경수 기자

뉴스피플

한국발명가협회 노영호 회장

혁신적인 발명 패러다임 제시, 발명의 생활화 통해 창의적 사고 함양



창의적 사고가 산업 판도를 바꿀 21세기의 기술 트렌드와 교육 키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알파고와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발명의 생활화를 주도하는 한국발명가협회(회장 노영호)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한전에 근무하면서 발명품을

개발한 그는 퇴직 후, 제2의 삶으로 발명확산운동을 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연세대학에서 지적재산권학법무 석사학위도 취득했다.

'발명 대국 창조하여 경제 대국 건설하자'는 기치 아래, 학생들의 발명활동 지도와 많은 발명가들의 애로와 지원도 일 삼으며 발명인들의 사기 진작에도 힘써왔다.

청년들과 아우르며 멘토 역할을 하고자, 그는 역사적인 의미가 서려 있는 세운상가에 스타트업 동지를 틀고,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신 개념의 실버 파워 패러다임을 토대로 고령사회와 청년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 창의적인 인재 교육 커리큘럼, 뉴 패러다임의 직무발명제도화 혁신 책, 경쟁력이 저하되는 대학들의 특성화(창조성, 발명대장 노영호)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한전에 근무하면서 발명품을

의욕을 고취시키고 발명 교육에 관한 뉴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등, 발명 교육의 제도에 앞장선다. 발명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노 회장은 국제 특허를 획득한 '쓰나미 구명 장치'로 일본의 '세계발명전제대회'에서 전제금메달을 수상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발명가로서의 생활은 물론이며, 국가 정책에 대한 조언, 등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그는 "글로벌 시대의 최대 경쟁력은 창조적인 사고력"이라며 "발명은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발명생활화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책과 함께 발명자에 대한 보나 높은 합리적인 보상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이나 제품 업그레이드, 신제품 개발에 고민하는 업체와 협업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공지현 기자

삼성미래여성병원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만남’,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추구

삼성미래여성병원(대표원장 조준형)은 2006년 개원 이후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만남’과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추구하며 명품 여성병원으로서의 임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산부인과와 복강경센터·난임센터를 중심으로 소아과·마취과·산후조리원 등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진료시스템을 구축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왔던 결과이다. 여기에 다년간의 진료경험으로 실력이 검증된 우수 의료진, 전문 간호사 및 연구원 등이 포진하며 ‘365일 24시간 토털케어서비스’의 수준과 신뢰도를 드높였다.

특히 삼성미래여성병원은 자궁근종제거 권위자인 조준형 원장을 주축으로 개원 12년간 복강경수술 8500례(2017년 10월 26일 기준) 복강경대수술'을 시행했다. 복강경 수술분야는 집도의의 임상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삼성미래여성병원의 위상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 만하다.

조 원장은 “국내 최초로 ‘자궁근종 복강경제거술을 시행한 여성병원’으로서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최상의 의료기술로 신뢰받는 여성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삼성미래여성병원의 분



조준형 삼성미래여성병원 대표 원장

만클리닉은 ‘소프롤로지분만(Sophrology birth)’ 및 ‘트베이예분만(Leboyer birth)’ 등 태아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며, 산모 건강상태와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는 자연분만을 지향한다.

삼성미래여성병원은 365일 24시간 무통분만 시행, 신생아집중케어시스템과 가족분만실 마련, 산모 및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공 분만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부부교육교실·태교교실·요가교실 등) 운영으로 산전부터 산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인증 수유상담사들로 구성된 ‘모유수유상담실’에서는 1:1맞춤 모유수유와 울

바른 지식·정보 등을 제공해 산모들의 호평이 자자하다.

또 ‘정부지원 시현관시술병원’으로 지정받은 삼성미래여성병원 난임센터가 차별화된 과배란유도와 보조생식술로 임신성공률을 높이며, 희망의 결실을 학수고대한 난임 부부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조 원장은 “우수 의료진과 최상의 의료기술, 첨단 의료장비 등으로 ‘산모와 태아를 위한 토털케어 여성병원’의 롤-모델을 제시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내 집처럼 편안한 여성병원을 만들고, 고객 한분 한분을 가족처럼 여기며 정성껏 진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전문병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따뜻한 이슬을 전하는 의료봉사·나눔 활동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미래여성병원 조준형 대표원장은 여성병원 롤-모델 구축과 고객만족 의료서비스 제공에 헌신하고, 복강경 수술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산모 및 태아 토털케어클리닉 발전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제15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공지현 기자

조한상 김 미 자

조한상 김 미 자 | 상임이사 양 영 철 | 이사 원화옥, 김영삼, 김세영, 강복자, 오복자, 현환희, 김상목 | 감사 고방길, 김기만

본 소	신용사업
지도 총무 T.733-3501~2	솔동산 지점 T.733-3253~4 중앙지점 T.733-4391~2
경제 사업 T.733-3503~4	남원지점 T.764-0029 중문지점 T.738-8848~9
리스크관리 감사실 T.733-3518	아라직매장 T.724-3509 아라지점 T.724-3501~2

리셋컴퍼니

일본의 폭설지역에 ‘제설로봇’ 보급



임직원과 함께, 앞줄 중앙 정성대 대표

리셋컴퍼니 정성대 대표는 태양광 패널을 세척 및 제설하는 무인로봇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업체이며, 정성대 대표는 벤처기업에서 신기술개발과 청년창업을 통한 무인로봇기술로 해외시장 수출 및 新성장분야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자금을 통해 창업하여 국내 특허와 일본 특허를 등록 받았으며,한국전력

공사 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선정되어 일본 홋카이도지역의 폭설피해 방지 제설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리셋컴퍼니에서 개발한 무인로봇은 폭설 및 오염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 시설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폭설지역 발전소를 위한 제품이다.

센서를 통해 무인으로 구동되는 이 로봇은 이슬 또는 비가 감지되면 태양광 패널 표면의 오염물, 황사, 조류분비물을 자동 구동 와이퍼가 세척하고 겨울철에는 적설이 감지되면 패널 표면 위로 눈이 쌓이지 않도록 눈을 상하로 밀어내 치운다. 특히 적설 속도 및 높이를 측정된 뒤 그에 맞는 와이퍼 구동을 통해 스스로 최적화된 구동 횟수와 속도를 설정해 눈을 제거한다.

이 무인 로봇은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고층 건물 유리 세척, 대형 간판 세척 및 제설에도 적용 가능해 보다 큰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7년 9월 일본 오사카 고성능건재 박람회에 제설로봇을 출시하였으며, 일본 BtoB시장에 진출한 리셋컴퍼니는 일본의 폭설지역에 제설로봇을 보급하여 2019년까지 매출액 1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무인제설기술은 폭설 피해가 큰 일본 외에도 스위스, 러시아, 캐나다 등의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